

장학과 담론

- 02** 명사 칼럼 내가 바로 문제의 해결사
- 04** 특별대담 전호환 부산대 총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역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10** 장학리뷰 한국장학재단, ‘현장 중심 경영체계’ 본격화
현장지원센터 전국망 구축 후 소통 강화

장학 투데이

- 14** 장학 현장 전국장학재단협의회 24時 - 석성장학재단을 찾아서
“장학 재단은 감동을 줘야 해,
그게 진정한 가치”
- 18** 이슈&트렌드 사물인터넷(IoT),
센서에 인공지능을 심다!
- 22** 대학 탐방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찾아서
부동산 경제 이끄는
취업률 1위 글로벌 학과
- 26** 장학지원 수기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 28** 진학 가이드 막으른 수시입시 어떻게 준비할까?



한국장학 소식

- 30** 똑똑한 경제이야기 미국 돈과 한국 돈의 교환가치(환율)는 어떻게 결정될까?
- 32** 대학생활탐구 한국장학패널조사 데이터로 풀어본 대학생의 일주일
- 34** 재단 소식
- 36** 특특 장학상담실



한국장학리뷰 2017년 7월호

등록일자 2015년 6월 11일 변경신고 2016년 11월 30일 등록번호 대구동, 라00018 발행처 한국장학재단(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발행인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편집인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장

편집기획·문의 김홍재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장·김은경 연구총괄팀 대리 (053-238-2660, 2664) 인쇄 매일피앤아이

<한국장학리뷰>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고등교육 장학지원 정책 및 제도를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무료로 배포하는 월간지입니다.

내가 바로 문제의 해결사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두 사람의 방랑자가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고도'를 기다린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다음날 또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말한다.

“그는 틀림없이 올 거야. 수많은 사기꾼들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만은 믿을 수 있을 거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고도'가 오지 않자, 그들은 화가 나서 소리친다.

“너무하다!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눈이 빠지게 '고도'를 기다린다. 막이 내릴 때까지.


사실 '고도'란 신(神)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베케트의 연극에서처럼 고도를 기다린다. 정치인들은 정권욕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출선수범해서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집행해야 할 법조인들조차도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 경제인들은 경제윤리를 외면한 채 기업을 부도내고, 병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종교인들조차 집안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해결사를 기다린다. 즉, '누군가가 나

타나서 우리의 정치를 안정시켜 주지는 않을까? 부정한 것들을 척결해 주지는 않을까?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를 염원하고 기다린다. 즉, '고도'가 빨리 나타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한방에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린다. 그러나 베케트의 연극에서처럼 '고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도'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해결사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 시련과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것인가? 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 나의 가정에 닥친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 등을 '나의 바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바로 문제의 해결사임을 자각하고 나와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넘어져 본 자만이 일어설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존재(problem-maker)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problem-solver)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사 즉, '고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역경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실존적 상황들이므로 당연히 그것들을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비탈에 선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만, 평지의 옥도에 선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비바람을 견뎌내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서 부닥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좋은 도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 응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넘어져 본 자만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도'가 바로 나 자신임을 항상 자각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말이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역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글 _ 장재훈 기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이 넘쳐 국가 발전의 동력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대 정원을 줄여도 좋아요. 대신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 지역 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때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총장은 지난 7월 5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가진 대담에서 지역대학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지역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동맥과 같은 존재”라면서 “지역인재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민장학금’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비, 대학교육의 혁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대담은 부산대 총장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민 여망 담긴 ‘국민장학금’

안양옥 이사장(이하 안양옥) 국내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직선제 총장으로 취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호환 총장(이하 전호환)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인 부산대 총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간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를 일 년처럼 매진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니 차량 이동거리만 30,850km, 지구 3분의 2바퀴를 뛰어다녔 더군요. 산적한 대학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총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 주요 현안에 대해 숨김없이 논의했고 교수회·대학평의회·학생회와도 중요한 정책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이 우리 대학의 더 큰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부산대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고회를 넘긴 나이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대 총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전호환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산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가 1946년 5월 15일 개교했고 이어 서울대가 같은 해 8월, 경북대는 1947년에 각각 세워졌습니다(전 총장은 이날을 기념해 자신의 차량 번호 끝자



부산대를 살리면
부산의 모든 대학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명문 대학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거점대학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리를 1515로 사용할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다).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서의 전통뿐 아니라 취업률과 연구성과, 대학 평가 등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특히 우리는 취업의 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가를 측정하는 유지취업률을 보면 부산대가 단연 1등입니다. 영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국내 국립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적 명성도 얻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부산대는 알짜배기 대학,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 총장님께서 주창하신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이 대학가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 정부의 거점 국립대 연합체제와도 밀접해 보이는데요.

전호환 부산에만 4년제 대학이 15개입니다. 재적생은 26만 명이고요. 그런데 재학생은 18만 명에 불과합니다. 즉, 거의 8만 명 이상이 휴학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역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젊은 사람들을 그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없다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활력소가 생기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컨대 저는 부산대가 좋아지면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함께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인데 부산대를 살리면 부산의 모든 대학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명문 대학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경제도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거점대학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양옥 대학은 그 도시의 자산이며 원동력입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공동강의와 캠퍼스 시설 공유를 통해 대학연합과 같은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호환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QS(Quacquarelli Symonds) 대학 평가 순위 30위 안에 미국이 15개, 영국이 6개, 스위스가 2개 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독일과 프랑스

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15개 대학은 연구 중심대학으로 미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학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동종 번식처럼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심장만 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듯이 대학들이 각 지역에서 골고루 역할을 해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양옥 그래서 한국장학재단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이외에 지역인재장학금(지방인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적기준으로 선발했지만 지금은 성적 50%, 특성화 50%의 비율로 하고 있죠.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지역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도 만들었고요. 총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역에서 인재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전호환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피할 길이 없잖아요. 정부도 2023년도까지 대학생 16만 명을 줄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42만 명입니다. 이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원은 대략 39만 명 정도 돼요. 모두 다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어서 대학 진학률을 60% 정도로 계산하면 그해 대학 신입생은 대략 23만 5천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대학 신입생 수가 55만 명이에요. 16만 명을 줄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 30만 명은 줄여야 계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러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 사라져요. 대학생 수를 줄여야 합니다. 국립대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정말 심각 ... 대학 생존이 달렸다

안양옥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풀림 현상으로 웬만한 지역대학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학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이외에
지역인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50%,
특성화 50%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죠.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지역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도 만들었고요.

전호환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재정이 중요한데 고등교육, 특히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을 왜 사립대학에 지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0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보면 사립대학에 2조 2,277억 원(84%)이 들어간 반면 국·공립대는 4,460억 원(16%)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절대금액은 적지 않은데 대학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나눠 먹기식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실 사학은 정부가 인수 하든지, 준 공영으로 하든지 과감히 정리하고 명문 사학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을 풀어줘야 이겁니다. 미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4만 불이 넘고, 5만 불을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세계대학평가에서 이들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재정 확충이 대학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문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자율화하고 사립에 지원 재원을 국립대로 돌려 거점 국립대를 명문 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반값등록금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국민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오롯이 반영돼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각 가정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셈이거든요. 사실 한국장학재단이 발족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높은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이 나온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이용해 각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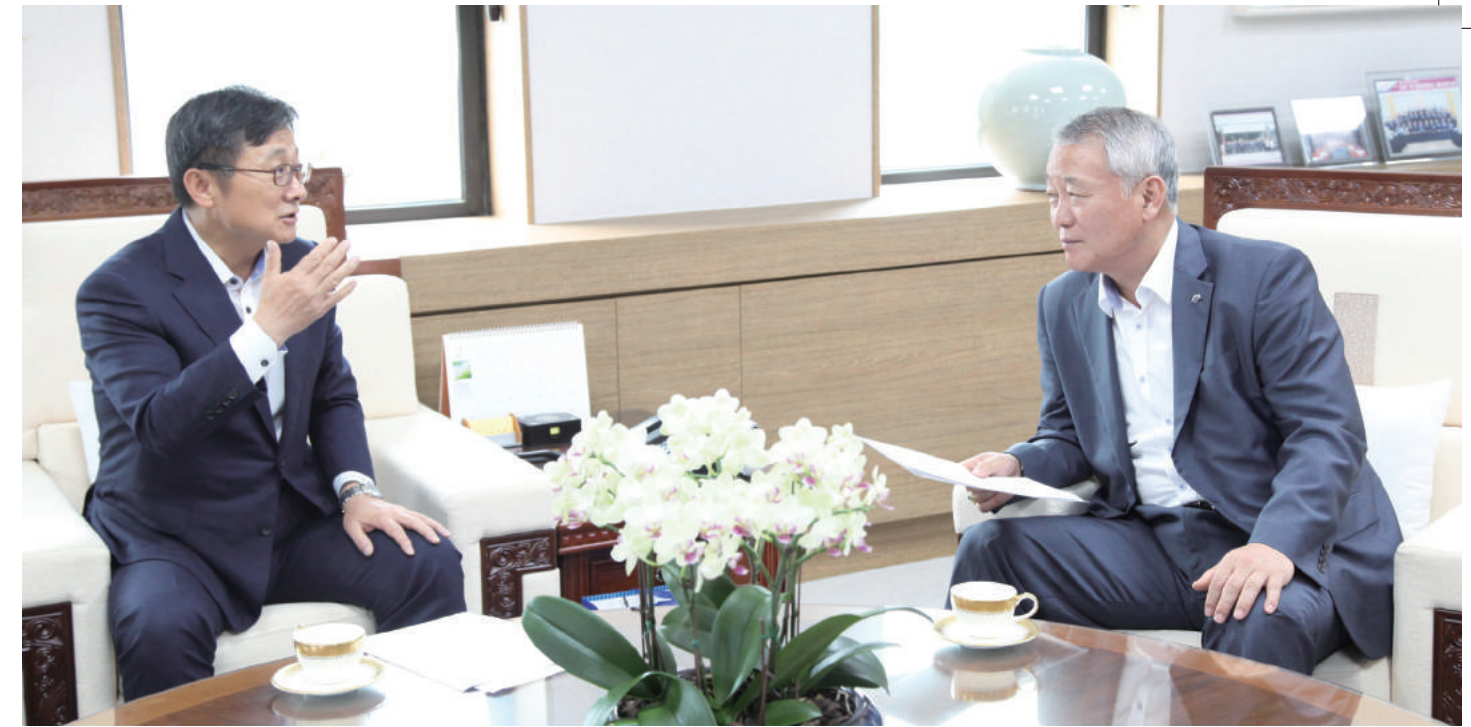
전호환 장학정책의 목적이 교육의 질 제고나 아니면 복지나 하는 측면에서 성과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양옥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장학금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한 세계 초유의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 마음속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개인 기부를 통해 반환하는 선순환 사례도 있고요. 국가장학금이 단순히 ‘고마운 장학금’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깁니다.

“국가장학금 탓에 대학 재정 줄었다”는 주장은 오해

전호환 대학 평가에서 떨어진 대학들의 경우 재정난에 시달립니다. 국가장학금을 대학 재정에 포함시키면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규모가 OECD 수준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양옥 정부 재정을 국가장학금에 투자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투자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대학 재정과 국가장학금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요. 일부 대학에서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장학금도 대학교육 발전에




한국장학재단이 발족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높은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이 나온 것입니다.

기여하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전호환 최근 한 학부모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1억 1천만 원을 우리 학교에 기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우리 학교에 300만 원을 기부한 분이예요.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수년 전 딸이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너무 고마워서 학교와 나라에 조그만 성의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특히 감사의 마음을 다시 대학과 우리 사회로 되돌려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고요. 한국장학재단이 참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장님을 비롯 한국장학재단 직원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안양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지 알고 싶습니다.

전호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생명과학 농학 동물 의공학 바이오나노소재 등 의·약·생명과학 연구중심대학의 모습을 그려갈 계획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양산에 의생명과학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수의과대학과 한국노화연구원,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양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현장 중심 경영체계’ 본격화

현장지원센터 전국망 구축 후 소통 강화



허경

한국장학재단 대학현장지원부
대학현장지원팀장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답을 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장소통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장학금이 ‘고마운 장학금’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지난 3월 22일 대전권역의 현장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쏟아낸 일성이다. ‘현장 중심 경영체계’로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겠다는 의미이다. 실제 안 이사장은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진두지휘하는 등 솔선수범 참여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2017년 한국장학재단의 현장간담회는 3월 대전권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부산권역 간담회와 광주·호남권역 간담회, 경인권역 간담회, 강원권역 간담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처럼 현장을 강조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장학재단 대구 이전에 따라 현장 지원체계 마련

한국장학재단은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대구광역시로 이전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는 데, 한편에서는 대학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떠나서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던 그 무렵,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대학과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하여 전국망을 구축하겠다

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부산에 현장지원센터가 최초로 설치되었고, 2015년 연말 재단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서울과 대구에 현장지원센터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의 출발은 대학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당시 소득분위 산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였는데, 온라인과 유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현장지원센터가 보완하면서 민원방문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거점 지역 중 충청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이런 성과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대면 서비스, 기관 협업체계 구축, 홍보 등 전방위 활동을 위하여 거점별 현장지원센터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다. 2017년 7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권역에 총 5개의 현장지원센터와 경기, 강원권역 2개의 출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장학재단은 경기, 강원 출장지원센터를 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 설치 현황>

센터	서울현장 지원센터	경기출장 지원센터	강원출장 지원센터	부산현장 지원센터	대구현장 지원센터	광주현장 지원센터	대전현장 지원센터
개소일	2015.11.18.	2016.12.24	2017.04.05.	2014.07.23.	2015.11.18.	2016.07.07.	2017.03.06.
설치 현황	이전완료 (2016.12.24.)	신설완료 (2016.12.24.)	신설완료 (2017.04.05.)	이전완료 (2017.03.18.)	이전완료 (2016.12.10.)	이전완료 (2016.07.07.)	신설완료 (2017.03.06)
위치	방송대	경기대	강원대	부산교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재정 건전성과 민원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아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국가장학금 등에 대한 대학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제도 관련 민원방문 편의성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홍보 사각지대 해소, 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는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학자금대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이에 따른 연체율 관리 및 맞춤형 교육 홍보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2016년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본격적인 통합 현장모니터링 체계(국가장학금 및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의 사후관리 등을 점검)를 구축하였는데, 대학 현장 점검 204개교, 근로 기관 점검 254회, 교육부 감사지원 24개교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는 고객과의 소통을 확장시켰다. 대학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1~2시간 내 대면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결과 2016년에는 현장지원센터의 방문 고객 민원 등을 7,553건이나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박람회 21회(16만 명), 설명회 266회(35만 명), 상담부스 총 48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맞춤형 현장지원을 하였으며,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해 대학 97개교, 근로 기관 131개, 학생 298명이 참여한 취업연계 히어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견인하였다. 2017년 1월 25일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민관의 지속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전국장학재단협의회’를 창립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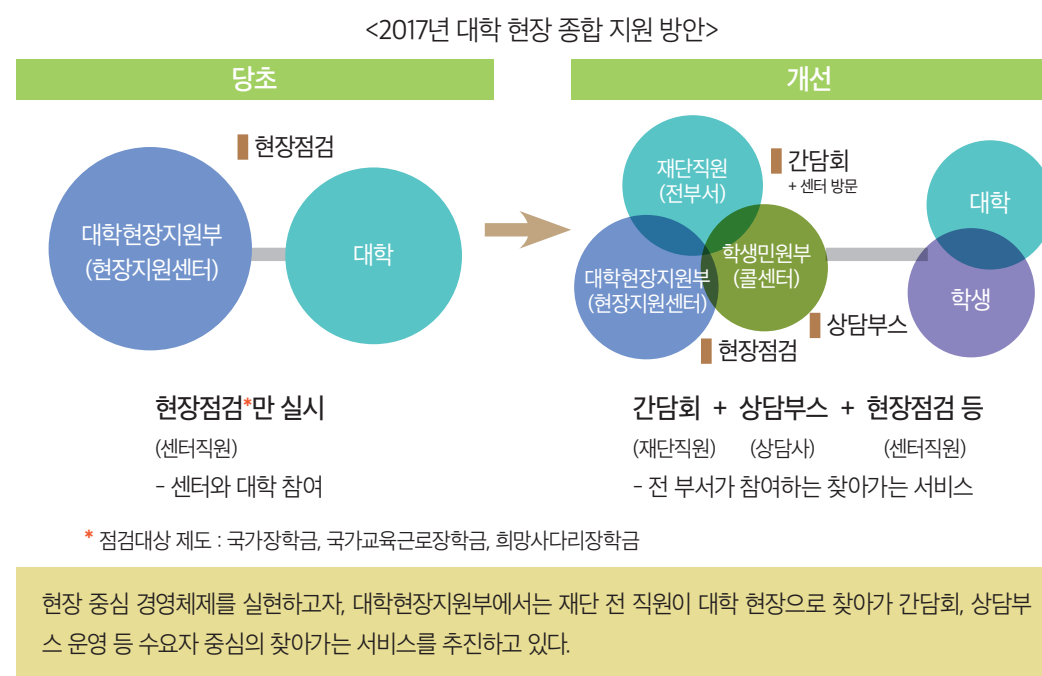
고, 각 지역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간 지원체계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국내 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민간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통계,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등 민간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재단은 대학생들의 의견과 전국 장학재단의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과 소득분위 이의심사 추진

2017년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재단 전 직원이 찾아가는 ‘대학 현장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재단 전 부서와 대학이 원보이스, 원마인드, 원바디의 자세로 재단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소통하고, 반값등록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다짐이기도 하다.

대학 현장 모니터링은 1팀당 총 6명 내외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점검반장은 부서장 혹은 팀장 1명이 수행하고, 대학현장지원부 센터 직원 3명, 학생민원부 상담사 2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현장지원센터 직원’을 중심으로만 구성하여 대학의 정보시스템 및 실물 서류 등의 검사를 통해 장학금 반환 등과 관련 ‘결격 사안 검사’였다면, 2017년에는 ‘재단의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대학 현장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검토’ 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점검반장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온 재단의 한 간부급 직원은 “재단에서 기획된 사항이 현장에서 직접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열과 성을 다해서 꼼꼼히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한 고민을 전달해주는 모습으로 인해 재단의 또 다른 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은 7월 국민대를 비롯해서 13개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재단 전 직원 330명이 함께 참여하여 275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대학현장지원부) 중심으로 국내 ‘소득분위 이의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소득분위 이의심사 처리에는 현장지원센터 인력이 전원 참여하여 심사기한 30일 내 모두 처리하여 신속도를 높였고, 본사 중심이 아닌 각 권역별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재단의 대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를 이루고, 전국의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득분위(구간) 이의신청 처리를 전담하여 고객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원보이스, 원마인드, 원바디의 자세로 협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입시·진로진학박람회 이사장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박람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함으로써, 종합장학지원(total care)의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 학부모에게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적성을 살리는 진로·진학 기회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리더가 지역 인재를 키우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멘토를 모집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근로자를 발굴하여 기업 기관의 사업 참여 유치를 위해 활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 상담센터 설치 환경 구성을 지원하여 대학생과 대학에게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 규모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학 현장 종합 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이사장을 비롯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 재단의 거점별 전초기지(前哨基地)인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단과 제도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재단’을 넘어 ‘세계적인 장학전문기관’으로 도약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체감하는 그날까지 한국장학재단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더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객의 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는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재단 전직원과 함께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 한국장학재단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

전국장학재단협의회 24時 - 석성장학재단을 찾아서

“장학 재단은 감동을 줘야 해, 그게 진정한 가치”

나눔과 봉사의 아이콘 석성장학재단 조용근 이사장

글_ 장재훈 기자



배가 고파 쥐고기로 연명하던 가난한 학생이 훗날 2천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나눔과 봉사의 아이콘이 됐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주말이면 청계천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18년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에 무료급식소와 학교를 세워주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장병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유가족과 군당국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소외된 이웃에게 헌신하는 ‘나눔 천사’로 선정돼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한 인물.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석성 세무법인 대표)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인데 이걸 잘못 된 인식이에요. 저는 ‘give, and more take’라고 생각합니다. 베풀면 10배 100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나눔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ive and take’를 넘어서는 보너스인 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조 이사장은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중독성이 있다”며 “첫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적과 같은 행복감 때문에 또다시 경험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눔과 봉사에도 5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원칙은 ▲지금부터 하라, ▲여기서부터 하라, ▲나부터 하라, ▲작은 것부터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등 모두 5가지다.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동이 필요하죠. 지금부터라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감동 스토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9급 공무원서 출발, 한국세무사회장 지낸 입지전적 인물

조용근 이사장은 1966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중부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공보담당관,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거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금은 석성 세무법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석성장학회 등 각종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다.

“석성(石成)이란 재단 명칭은 부모님의 함자 중 가운데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를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뤄보고 싶었습니다.”

석성장학회는 1984년 부친이 남긴 5000만 원이 마중물이 됐다. 그는 이를 밑천으로 장학

석성 선행(善行) 장학금

일시 : 2017. 4. 29(토) 14:00 주관 : (재)석성장학회 후원 : 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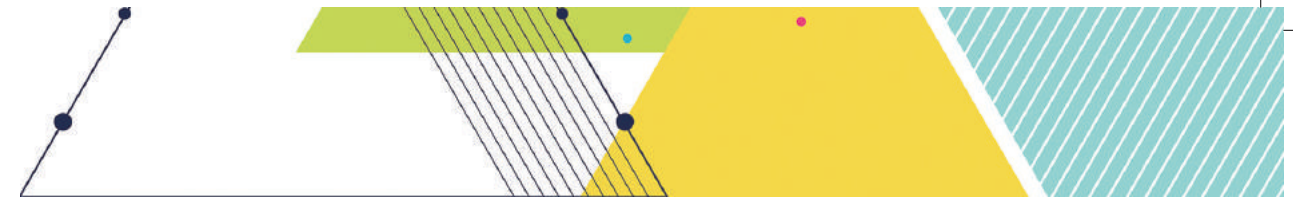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동이 필요하죠.
지금부터라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
각자 자신만의 감동 스토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은행 이자가 10%대여서 많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도움은 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솔직했다. 1호 장학금은 강원도 사북 탄광지역 화전민의 자녀였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도움을 주던 한 목사의 소개로 만난 아이였는데 조 이사장은 그때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장학재단 만들기에 나섰다. 열심히 기금을 모은 덕에 2억 28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러나 장학재단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길로 은행에 달려가 부족분을 대출받아 기준을 채웠다. 2001년 그가 국세청 공보관으로 있을 때 정식으로 재단법인 석성장학재단이 탄생했다.

2004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그는 2005년 세무법인 석성을 설립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매년 매출액의 1%를 장학재단에 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매출액의 1%를 재단에 기부하는 곳은 석성이 유일하다”고 그는 말했다. 조 이사장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은 석성 가족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실제로 석성 산하 세무법인 8곳이 모두 장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석성은 지금까지 총 18억 원이 장학금으로 지출됐고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 장학 기금도 5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총액이 43억 원으로 성장했다. 30여 년 만에 90배가 커진 것이다. 그는 “도와주신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 “세무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 장학금을 주느냐”는 의심에서부터 “정치하려는 쇼맨십이다”, “세금 안 내려고 꼼수 피운다” 등등 마음고생도 많았다. “처



음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제야 제 진심을 알아주더군요. 요즘은 가장 믿을 만한 장학재단이라며 시중은행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도 내 줄 정도가 됐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보다 인성 ... 2천 명에게 선행장학금 지급

석성장학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장학생 선발 때 성적을 보지 않는다. 처절하게 가난했던 자신의 전철을 어린 학생들이 다시는 밟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성적보다 가정 형편을 우선한다. 다만 가난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외적으로는 일체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장학금 이름도 '선행(善行) 장학금'이다. 올해 장학금은 암 투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공무원 자녀와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의 중·고·대학생 200명에게 전달됐다.


조 이사장의 사회 공헌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세무사 후배들과 교사, 공무원, 대학생들로 구성된 '석성 1만 사랑회'를 만들어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중증 장애인 공동생활관인 '석성 나눔의 집 3호점' 준공식을 열었다. 석성 1만 사랑회는 충남 논산과 경기 용인에 '나눔의 집 1~2호점'을 지은 바 있다.

조 이사장과 석성의 감동스토리는 국경을 초월한다. 그는 캄보디아를 우연히 찾았다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제공했다. 미얀마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건물 3동과 전산실습실, 정수시설, 학교 담 등을 건립해 기증했다.

조 이사장은 육군 병장 출신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13명뿐인 '명예해군'으로 위촉돼 있다. 대한 세무사회장 시절, 그는 천안함 폭침 당시 뉴스를 듣자마자 성금을 들고 방송국을 찾았다. 그 일이 인연이 돼 천안함 순직 장병 유가족을 돌보는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6년간 맡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는 그에게 해군 참모총장은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밥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20년 전 쌀가게를 하는 후배가 청량리 노숙자들에게 쌀을 기증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최 목사 등과 함께 '밥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유년시절 너무나 배가 고프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고 털어놨다. '밥퍼 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요즘 그에게 추가된 또 하나의 직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 잔디광장에 사람 얼굴이 조각된 조형물이 하나 있다. 이 조형물 맨 위에 조 이사장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검찰이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공직자의 표상을 삼고자 세운 것이다. 민간인이 그가 검찰의 귀감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장학재단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정말 수혜자들이 감동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동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진정한 장학재단의 길입니다.” 조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동 공장 공장장'이 되는 게 마지막 소망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센서에 인공지능을 심다!

김들플
IT NEWS 편집장

애플이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시 매케너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17'에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코어 ML(Core ML)'을 발표했다.

애플은 비전(Vision) API와 자연어처리(NLP, Naural Language Processing) API가 적용된 '코어ML'을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 iOS 11에 포함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직접 구동시킬 수 있다.



▲미시건대학 전자컴퓨터공학(E ECS)가 개발한 Michigan_Micro_Mote (M3).
출처: 미시건대학교

개발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애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지 인식의 경우 아이폰에서 실행하는 것이 구글이 자체 개발해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픽셀'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6배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코어ML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기기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현격하게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개인 정보 걱정이 없어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에 부합한다.

앞서 구글도 지난 5월 '구글 I / O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모바일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버전인 텐서플로 라이트(TensorFlow Lite)를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모바일 칩을 개발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저전력으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역시 2016년 11월, '카페투고(Caffe2Go)'라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선보였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받 고흐나 렘브란트 등 유명 화가의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켜 주는 아트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페투고 기능은 실시간으로 가능해 동영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는 엣지 컴퓨팅 시대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구현은 머신러닝 연산 특성상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야 했다. 따라서 전송부터 응답까지 시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필수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동일하게 적용해 스마트 기기에서 미리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탑재하고,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인공지능 기능을 온전히 사용자 경험(UX)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속도 또한 높이는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분야 4대 천왕 중 한 명인 앤드류 응(Andrew Ng)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공지능 연산이 클라우드에서 엣지(Edge)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변화는 사용자의 사물인터넷(IoT)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지고, 엣지 컴퓨팅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란 하드웨어와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

공지능 구현이 가능한 컴퓨팅 기기를 탑재한 기술이다. 기존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무인항공기)의 경우가 좋은 예다. 이들 본체의 수많은 센서를 통해 엄청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또한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일상의 사물들이 센서를 통해 온도, 위치, 조명, 압력, 소리, 움직임의 변화 등 데이터를 추출, 연결, 분석, 관리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은 센서가 필수적이다.

머지않아 세포안에 칩을 넣을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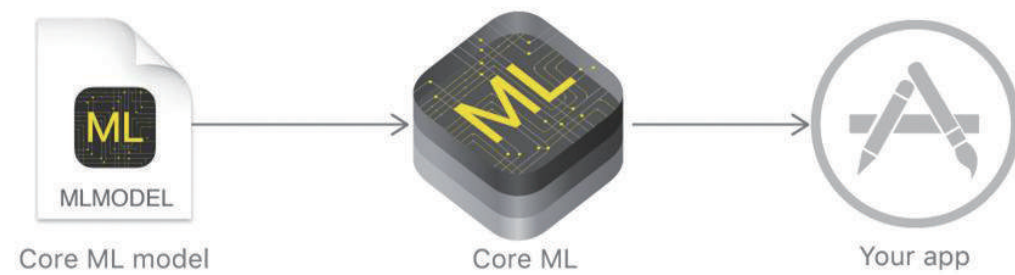
2014년 스탠퍼드대에서 열렸던 '1조 센서 서밋 (Trillion Sensor Summit)'에서 센서 관련 전문가들은 2024년에는 전 세계에 1조 개의 센서가 설치되고, 2036년에는 100조 개의 센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조개의 센서가 곳곳에 설치되겠지만 인터넷 연결 없이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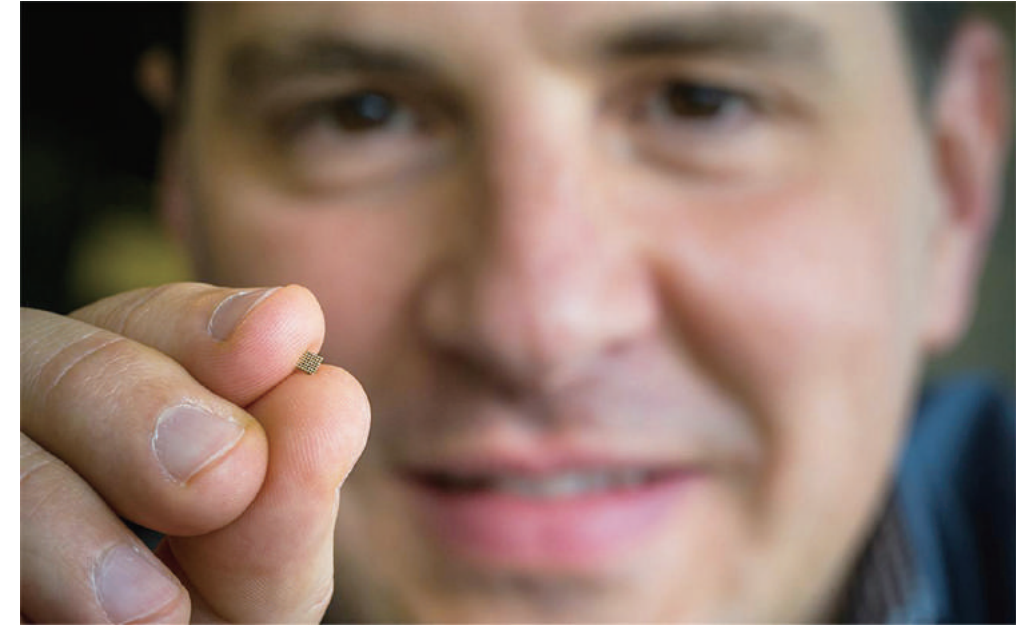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연구소(Microsoft Research India) 마닉 바르마(Manik Varma)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인터넷 연결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패러다임은 센서 디바이스가 명칭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 데켈(Ofer Dekel) 수석 연구원이 이끄는 미국 워싱턴 레이몬드(Redmond)와 인도 방갈로르(Bangalore) 연구소의 약 30명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저전력, 신용 카드 크기의 컴퓨터인 10달러짜리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에 인공지능을 임베드(embed)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바르마 연구원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인공지능 기능이 멈추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며, "사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고 연구 배경을



▲애플의 코어 ML
출처 : Apple Developer



▲오퍼 데켈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은 언젠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사물인터넷은 일상의 사물들이 센서를 통해 온도, 위치, 조명, 압력, 소리, 움직임의 변화 등 데이터를 추출, 연결, 분석, 관리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은 센서가 필수적이다.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크기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쌀알 크기 정도로 1만 배나 더 작게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미국 스탠포드대 전기공학과 아다 폰(Ada S. Y. Poon) 교수와 심장외과의 의학자들이 쌀 한 톨 크기의 마이크로이식장비(microimplants)를 개발하고, 동시에 인간 몸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중거리무선전송(mid-field wireless transfer) 기술을 개발, 토끼나 쥐에 이식된 마이크로이식장비에 전원을 무선 전송 또는 충전하는데 성공해, 전 세계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또 2015년 미시건대학교의 전자컴퓨터공학(E ECS)가 10년 동안 개발한 쌀 한 톨 크기의, 부피 1mm3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컴퓨터인 Michigan_Micro_Mote(M3)를 개발했다.

'스마트 먼지(Smart Dust)'라고 부르는 초소형 컴퓨터는 사물인터넷(IoT) 뿐만 아니라 생체인터넷(IoB), 산업인터넷(IIoT), 스마트홈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데니스 실버스텔러(Dennis Sylvester) 교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 줄여 세포 안에 칩을 삽입할 날이 올 것"이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찾아서

부동산 경제 이끄는 취업률 1위 글로벌 학과

글_ 김혜미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시원스런 일감호(湖)를 휘돌아 대학 건물 숲을 지나면 7층 규모의 산뜻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 학교 부동산학과만 사용하는 전용 건물 ‘해봉 부동산학관’이다. 대학에서 단과대학이 아닌 특정학과가 단독 전용건물을 가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학과장을 맡고 있는 노승한 교수는 “전국 1만여 동문들이 성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기증한 건물”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와 전통과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대한민국 부동산학 교육에 있어 최고와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72년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이 개설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이 학문적 체계를 잡기 시작했다. 이후 1985년에 부동산학과 학사과정, 1989년과 2000년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각각 개설됐다. 2001년에는 특수대학원으로 부동산대학원이 설립 되는 등 건국대 부동산학과와 역사가 곧 대한민국 부동산학 교육의 역사인 셈이다.

은행, 증권, 공기업, 건설사 등 부동산학과 진로 무궁무진

“부동산학과 나오면 뭐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윤수민 씨가 대학 졸업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05학번 출신인 그의 대답은 항상 명쾌하다. “응, 부동산과 관련된 일은 다해!” 사실이다. 윤 씨처럼 은행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기업, 건설회사, 감정평가, 자산관리, 자산운용, 신탁사, 증권사, 백화점, 중개/컨설팅, 화장품회사와 같은 일반 기업과 공무원 등 부동산학과와 진출 분야는 상상을 초월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모든 경제활동 영역이 ‘앞마당’인 셈이다. 일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연관을 짓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부동산학과=공인중개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부동산의 과학화, 금융화라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이다.

예컨대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최근 10년간 졸업생들이 취업한 기업의 리스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래에셋, 노무라, 골드브릿지 등 자산운용사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그리고 메이트플러스, 삼성에스원, KT estate 와 같은 자산관리사, 한국토지신탁, 국제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금융권의 굵직한 기업만 60여 곳에 이른다.



노승한 교수는 “전국 1만여 동문들이 성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기증한 건물”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와 전통과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건설과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분야의 취업은 더욱 활발하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GS건설 등 건설사와 SK D&D, 엠디엠, 신영, 한화도시개발 등 개발사업 및 시행 분야에서 환영받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SH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 진출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이외에 삼정, 안진, 삼일회계법인 등 중개 건설링 분야는 물론 국내 유명 감정평가법인등에서도 건국대 부동산학과 출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취업시장에서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데에는 이 같은 최고의 전문성과 1만여 동문들의 끈끈하고 열정적인 후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985년 학과 개설 이래 졸업생만 1만여 명. 부동산학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의 최고를 자랑하는 이들은 ‘건대 마피아’로 불릴 정도로 선후배 간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3학년 김재환군은 “학과 특성상 현장실습이 많은 편인데 언제 어디서든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전폭적인 환영을 받는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만난 선배들로부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선후배간 돈독한 유대를 바탕으로 취업 등 진로 전망이 밝다보니 부동산학과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다. 노 교수는 “부동산과의 취업률이 인문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치학부에 속해 있을 때는 전체 150명 학생 중 90여 명이 부동산학과를 선택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의 지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신입생의 40%가 여학생일 정도로 여풍(女風)이 강하다. 부동산학과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신수빈 학생(2학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 디벨로퍼(developer)가 꿈이다. 그는 “부동산학과에서 금융과 경제, 법률 등 다

“부동산학과에서
금융과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진로 설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꼼꼼하고 친절한
여학생들이라면
도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진로 설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꼼꼼하고 친절한 여학생들이라면 도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고의 교수진과 끈끈한 동문愛, 건국대 대표학과로 우뚝

최고의 교수진도 부동산학과만의 자랑이다. 조주현 교수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과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중흥을 이끈 대부로 꼽히고 있으며, 부동산경제학과 부동산정책론을 강의하는 손재영 교수는 부동산과 경제 칼럼리스트로 유명하다. 고성수 교수와 이현석 교수, 신승우 교수는 부동산 관련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코넬대 박사 출신이고 심교언 교수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개발 전문가로 명성을 날린 인물이다. 노승한 교수는 미국 조지아 주립대에서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건국대에 스카우트된 실력파로 알려졌다.

부동산학과는 또 건국대가 자랑하는 대표적 학과로 꼽힌다. 건국대가 가장 자신 있는 학과 5개를 선정해 신입생 홍보에 나서는 프라이드 리딩 그룹에 부동산학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학교 측의 지원도 전폭적이어서 재학생 10명 중 4명은 장학금을 받는다. 건국대 입학안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학과의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36.68%로 톱 클래스에 속한다.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 특전도 주어지는데 지난 7월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학교측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다녀왔다. 해외 유명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현재 미국 위스콘신대를 비롯 조지아주립대, 시카고 드폴대, 뉴욕스톤부룩대 등이 부동산학과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부동산학과 학생회장 이민성 군(3학년)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온다고 해서 꼭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스펙셜리티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학과는 최적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대학진학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과 홈페이지(www.realestate.ac.kr)를 한번만 들어와 보면 부동산학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한민국 부동산학의 메카,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들의 펼쳐나갈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한나경
동국대학교

되어 2차 신청 날짜를 겨우 맞추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또 학자금 대출도 신청했다. 학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부모님은 분명 그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셨을 것이다.

국가에서 안전하게 빌릴 수 있고 그리 이자도 높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400 곱하기 8을 해보며, 내가 졸업할 때 빚이 3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니 벌써 막막했었다. 입학 전부터 캠퍼스 라이프가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렸다.

입학을 하고 나서도 봄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다. 침대에서 10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해대던 그날. 생애 그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기침소리에도 똑똑, 하고 옆방의 벽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날은 하필 내 생일이었다.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고시텔은 보증금은 없지만 창문이 있으면 5만 원 추가, 샤워실이 있으면 5만 원 추가. 숫자와의 싸움은 무시무시했다.

그날 이후부터 회의감이 몰려왔다. 대학에 가면 좋은 것만 먹을 줄 알았더니 돈이 없어서 학식,

밥버거가 주식이었고 신입생 술자리라도 있는 날엔 며칠간 라면만 먹어야 했다. 예전에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에 경제적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다. 남들 스파게티 먹을 때 라면 먹으면 된다고, 그래도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 게 행복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다시 하려면 할 수 있을까. 햇빛도 이제 창문 추가 비용인 5만 원으로 느껴지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의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국가장학금을 확인했을 때였다. 2차로 신청해서 학기 중에 결과가 나왔었다. 나는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해보고 그것에 대해 전혀 감이 없었기에 200만 원이 넘게 나온 국가장학금에 깜짝 놀랐다. 소득 분위기를 확인하자 2분위였다. 우리 집이 객관적으로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결 어깨가 가벼워졌다. 빚이 반 이상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취업 후부터 갚아도 되는 든든학자금 대출도 받게 되었다.

나도 그때부터 진심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졌다. 잊고 있었던 내 꿈이 다시 생각났고, 이곳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오고 싶었던 곳인지 상기했다. 평소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았고 학교 커뮤니티에 좋은 동아리를 추천해달라는 글을 쓰기도 했었다. 그렇게 나는 글 쓰는 동아리와 음악 창작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과에서 열리는 행사들도 모두 참여했다.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만나 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동기들과도 훨씬 친해졌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고시텔로 돌아가 소리를 참으며 우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수업도 이제부터 제일 앞자리에서 듣기 시작했다. 국가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학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기들과 술 먹고 놀다 보면 과제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이 과제는 240만 원짜리(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과제다'라고 생각하며 밤을 새워 다 했다. 2점대 후반을 넘기는 게 목표였던 나였지만 대학 첫 성적표에 '평균학점 3.94'가 적혀있었다. 목표를 훌쩍 넘어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신청했다. 그리고 나중에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원하던 것보다는 학점이 잘 나왔었지만 우리 학교가 장학금에 좀 야박하다는 소문에 기대조차 안 해서 장학금은 확인도 안 했다. 하지만 등록금은 0. 국가장학금과 학교에서 주는 모범장학금으로 등록금이 모두 감면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좀 더 욕심내고 싶어 2학기에는 '국가근로장학생'도 신청했다. 소득 분위가 낮아 합격할 수 있었고 시급 9,500원이라는 교외 근로를 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다들 당시 6,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기에, 훨씬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국가근로'를 통해서 번 돈은 한 폰도 쓰지 않았다. '생활비대출'로 받은 돈도 마찬가지로 쓰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창문도, 화장실도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는 앞으로 빚을 더 지게 될 것이고 대학 생활 동안은 넉넉하진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닌다. 여전히 꿈을 꾸고 글을 쓴다. 적어도 나 혼자 짐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감사함을 다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막오른 수시입시 어떻게 준비할까?



정제원
서울 송이여고 진학담당교사

오지 않을 것 같은 2018 수시전형 원서 접수일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근 입시 분위기 상 수시원서 접수는 입시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이미 입시를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나는 날 경험하는 진한 아쉬움과 허탈감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매년 고3 담임을 하면서 올해는 아쉬움을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벌써 11년째 그 아쉬움은 여전하다. 그래도 그 세월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수시 지원의 기준을 세워보았다는 점이다.

첫째,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여 수능 성적을 예측 해본다. 예측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입시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고3 학생들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모의고사 성적이 하락

하고, 하락한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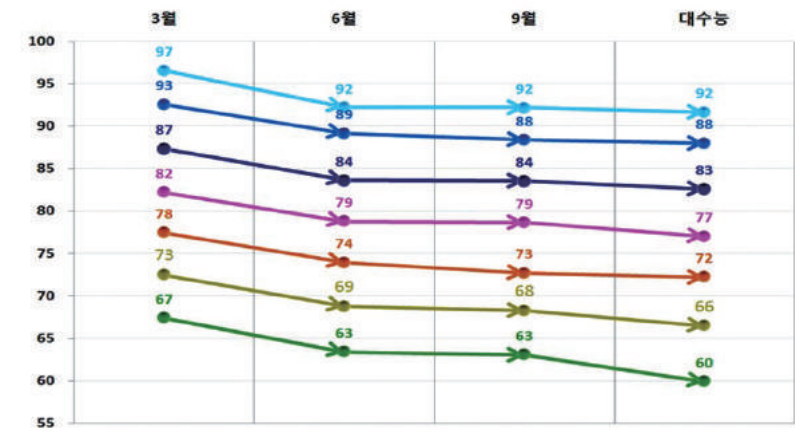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백분위 점수가 97%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이 점수가 나오면 무난히 서울 최상위권대학의 일부 학과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 학생이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92%의 성적을 받았다면 정시에서는 중위권대학을 상향으로, 중하위권대학을 적정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겸손하게 원서를 쓰는 것이 입시에서 서운함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된다. 통계적으로 3월 모의고사에서 3~4%를 빼면 대략적인 예상 수능 성적이 나온다.

학과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두 번째는 학과와 대학 사이의 선택 문제이다.

<고3 수험생 모의고사 성적 추이>



출처: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학과를 선택하라고 한다.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대학 지원을 할 때 보면 학과에서 대학으로 선택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막상 지원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엄습해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생각이 달라진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연히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이다. 그렇지만 이 둘을 선택해야 한다면 경험적으로 볼 때 대학이 우선이다. 물론 합격을 위해서 문과 학생이 이과 학과에 지원하는 교차지원도 생각해 여지가 많다. 대학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결국엔 재수나 반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계열 내에서는 학과를 조정하여 좀 더 나은 평가를 받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학교 적응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3년간 준비하여 합격한 학과가 기대한 바와 달라 고민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학을 선택해 적성에 맞는 학과를 고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심리학과는 교육학과나 교육심리로, 신문방송학과는 사회학과나 영문과 또는 국문과로, 화학이나 생물학과는 농업대학 쪽으로 지원하여 전공도 살리고 합

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논술전형이나 학생부교과 전형처럼 지원 동기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형에서는 모집인원이 많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학에 가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캠퍼스 소속 변경 등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여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셋째 지원 시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학을 지원할 때는 유명 입시 전문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한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가 임박해서 가입하는 학생들이 있다. 접수 마감 시간에 급하게 지원하면서 동시에 회원가입을 하려다 보니 접수 마감 시간을 놓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접수와 자기소개서 입력 시 마감 시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된 일도 과거에 있었다.

원서 접수를 잘못하면 그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다. 사소한 일로 보이더라도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실질적인 일인 아닌 부가적인 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자.



미국 돈과 한국 돈의 교환가치(환율)는 어떻게 결정될까?

김원장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진행자



“7월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4.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종가(1,157.4)보다 3.1원 낮은 수준이다.” 매일 듣는 뉴스다. 무슨 말일까? 달러화에 대한 우리돈 '원화'의 환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정답은 '외환시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외환시장' 단 1곳의 외환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국내의 투자자들이 달러화와 원화를 사고판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된다. 배추 팔듯이 달러화를 사고판다.

돈의 값도 운동화나 배추값처럼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자유롭게 변하는 '변동환율제'다. 달러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3원 1전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돈의 가치가 3원 1전 비싸졌다는 뜻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우리 돈을 사겠다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뜻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각

국의 환율은 달러화에 고정돼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 미국은 강력했다. 글로벌 경제의 힘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기울고 있었다. 갈수록 지구 경제는 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 유럽 국가들의 걱정이 커졌다. '미국이 달러를 무한 발행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도시에서 44개 나라 연합국 대표들이 모였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에 합의한다.

합의 내용은 이렇다. '미국은 은행 곳간에 금 1온스가 생길 때마다 정확하게 35달러만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니 금이 더 없으면 미국의 달러발행은 제한된다.' 미국이 제한된 달러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갈을 물린 것이다. 세계인들은 비로소 달러를 믿고 쓸 수 있게 됐다.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구 경제를 책임진(?) 미국의 과소비는 본격화됐다. 유럽은 물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다. 전쟁도 잦

아졌다. 베트남전에 막대한 달러가 투입됐다. 미국인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러자 열심히 수출해 달러화를 모으던 유럽 국가들의 의심이 커졌다. '미국이 과연 보유한 금만큼만 달러를 찍어내고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모으는데, 미국은 혹시 그냥 Green Back(녹색인 달러의 별명)을 찍어내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금태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커질 무렵, 바다 건너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보유한 달러를 모두 금으로 바꿔올 것을 지시한다. 결국 1971년 여름,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곳간에 그만큼 금이 없다고,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고 고백한다. 금 교환권으로의 달러의 지위는 여기서 끝났다. 브레튼우즈 체계는 끝났다. 이때부터 세계는 교역을 하면서 자유롭게 자국의 화폐를 달러와 교환하게 된다. 변동환율제의 시작이다.

진짜 변동환율제의 시작(1971년)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달러가 자국 외환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자국 화폐로 교환해 보관한다(삼성전자도 수출해서 번 돈을 대부분 국내 은행에 원화로 바꿔 보관한다.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새 공장도 짓는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사람이 늘어난다.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자국 화폐가치가 높아진다. 그런데 자국 화폐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자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양이 줄고, 이번엔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간다. 이렇게 외환시장의 균형이 이뤄진다.

그런데 미국은 지구 최대의 무역 적자국가다. 적자가 쌓여간다. 고민하던 미국은 1985년 당시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던 일본을 부른다.

'엔화의 화폐가치를 올리는 약속 즉, 프라자 합의(Plaza agreement)'을 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링 위에서 교역을 할 때 일본은 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해야한다. 이 약속은 이후 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에 결정적 도화선이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화폐의 교환은 이렇게 반드시 자유롭게 시장원리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늘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 뒤에는 기축통화 발행국가 미국이 있다.

“달러는 우리 화폐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존 코널리 미 재무장관”

30여년 전 미국과 일본의 화폐 힘겨루기는 지금도 여전하다. 파트너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백악관은 늘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국'의 화폐가치가 못 미덥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렸고, 그 덕분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믿는다. 중국을 압박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논다. 그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우리도 들어있다. 어찌면 그것은 지구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세계 8번째로 많은 흑자를 남기는 우리의 필연이다. “달러를 그토록 많이 벌어가는데, 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가?” 미국은 오늘도 우리 외환시장을 의심한다.

환율은 우리돈과 외국돈의 교환비율이다. 그 비율은 수많은 변수로 결정된다. 자칫 달러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시련이 닥친다. 미국은 오늘도 계속 달러를 찍어낸다.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우리 외환시장에도 달러가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그 파도는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된다. 그렇게 우리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 



한국장학패널조사 데이터로 풀어본 대학생의 일주일

장슬아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연구총괄팀

힘난한 취업 절벽의 현실 앞에서 대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학생 하면 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대외활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어들 쉽게 떠오른다. 온갖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받는 대학교 3학년이라는 뜻의 '사망년'이라는 신조어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3년 대규모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패널 10,603명을 대상으로 한국장학패널조사(Korea Student Aid Panel Survey, KOSAPS)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 데이터 중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제2차 패널조사 대학생 데이터(가중치 적용)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주일을 수치로 알아본다.(데이터 클리닝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음)

대학생의 주당 평균 강의수강 시간은 12.55시간

구분	가중 사례수 (명)	하지 않음 (%)	주당 1시간 미만 (%)	주당 1~2시간 (%)	주당 3~5시간 (%)	주당 6~10시간 (%)	주당 11~15시간 (%)	주당 16~20시간 (%)	주당 21시간 이상 (%)	평균 (시간)
강의수강(실습포함)	3,983	3.3	1.7	4.1	10.8	17.7	20.3	27.4	14.5	12.55
혼자 개별적으로 공부 (예습·복습, 과제 등)	3,983	3.5	6.0	16.7	29.9	21.8	10.3	5.1	6.8	6.93
자기계발 또는 취업·진로준비	3,983	11.3	13.5	20.3	23.8	16.2	6.4	3.5	4.9	5.19
모둠 스터디(그룹 스터디)	3,983	41.3	9.5	16.4	16.7	9.9	3.2	1.2	1.7	2.80
독서	3,983	25.0	27.9	21.4	14.4	6.6	2.2	1.2	1.3	2.47

대학생들이 학습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당 강의 수강 시간이 평균 12.55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혼자 개별적으로 공부(6.93시간), 자기계발 또는 취업·진로 준비(5.19시간), 스터디(2.80시간), 독서(2.47시간)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사회생활 시간은 친구·선후배 교류, 가족 간 교류, SNS 활동 순

구분	가중 사례수 (명)	하지 않음 (%)	주당 1시간 미만 (%)	주당 1~2시간 (%)	주당 3~5시간 (%)	주당 6~10시간 (%)	주당 11~15시간 (%)	주당 16~20시간 (%)	주당 21시간 이상 (%)	평균 (시간)
친구(이성교제 포함)·선후배와의 교류	3,983	2.5	5.6	13.5	23.6	26.4	14.9	6.5	7.0	7.89
가족 간 교류 (대화, 모임, 집안일 등)	3,983	5.9	18.1	22.9	23.5	16.7	6.9	2.8	3.1	4.85
온라인 소셜네트워킹(SNS 활동)	3,983	17.9	14.9	16.4	21.1	14.8	7.6	3.6	3.8	4.85
교내외 단체 활동 (동아리, 동호회, NGO 등)	3,983	39.7	12.7	12.7	15.2	10.2	4.9	2.0	2.6	3.28
교수와의 교류	3,983	28.5	35.0	17.5	9.9	5.7	1.9	0.8	0.7	2.00

대학생들은 친구, 이성 교제, 선후배와의 교류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주당 평균 7.89시간). 사회생활에 여력이 없어 혼자 밥을 먹는 자발적 혼밥족과 같이 최근 혼자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2.5%에 그쳤다. 가족 간 교류와 SNS 활동은 평균 4.85시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SNS가 점점 발달하고 있으므로 시대 흐름에 맞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내외 단체 활동(3.28시간), 교수와의 교류(2.00시간) 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는 주로 TV시청이나 게임으로 활용

구분	가중 사례수 (명)	하지 않음 (%)	주당 1시간 미만 (%)	주당 1~2시간 (%)	주당 3~5시간 (%)	주당 6~10시간 (%)	주당 11~15시간 (%)	주당 16~20시간 (%)	주당 21시간 이상 (%)	평균 (시간)
TV시청·게임	3,983	8.6	12.7	19.2	24.9	17.6	9.9	3.5	3.6	5.50
운동	3,983	14.7	18.1	23.2	19.1	15.3	5.6	2.1	1.9	4.02
기타 취미 생활	3,983	18.5	15.5	22.7	21.1	13.3	4.9	2.1	1.9	3.82
자원봉사활동	3,983	57.5	14.6	11.3	8.2	5.2	1.7	0.9	0.5	1.56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주중 5.50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으로 4.02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취미 생활에는 3.82시간, 자원봉사활동으로는 1.56시간을 쓰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학업과 생계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취업이나 학비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패널 응답 데이터를 통해 대학생들의 일주일을 들여다본 결과 주중 일과 대부분을 학습 계발을 하며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부와 자기계발에 더불어 인간관계, 여가생활, 아르바이트 등 본인을 발전시키는 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며 일주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미래 인재의 일원으로서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에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KOSAF news

한국장학재단, 대학생들의 꿈도전을 지원하는 '세계를 향한 꿈도전단' 출정

지난달 22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서울사무소에서 제6기 '세계를 향한 꿈도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계를 향한 꿈도전단'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꿈을 가진 대학생이 팀을 이루어 전 세계 각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꿈도전단 사업 재원은 우리은행의 기부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재단은 지난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까지 총 389명의 꿈도전단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6기는 전국에서 응모한 대학생 1천여 팀 중 최종 18팀, 60명의 꿈도전단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5대양 6대주에서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세계를 향한 꿈도전단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사례를 경험한 후 국내 적용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는 팀은 물론, 다양한 진로 모색과 봉사활동 등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꿈도전단이 많았다. 올해는 꿈도전단 사업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지속적 기부에 참여해주신 우리은행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꿈도전단이 전 세계 각지에서 드높은 꿈을 실현하고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더 큰 꿈을 설계해갈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뜻을 밝혔다.



▲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제6기 세계를 향한 꿈도전단 발대식'에서 안양옥 이사장,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 우리은행 조운행 부행장과 선발된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군 장병 맞춤형 학자금 대출상담 및 후원물품 전달



▲ 안양옥 이사장이 군장병들의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50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정재학)을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안양옥 이사장은 제50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 장병 대상 맞춤형 학자금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20일에는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월 22일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50보병사단과의 민·군(民軍) 협력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재단은 군 장병들에게 학자금 대출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금융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학비 걱정 없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50사단 이외에 육군훈련소·해군·공군·해병대 교육사령부의 신병 입영문화제에 참여하여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 장병 대상 맞춤형 학자금 대출 상담을 실시하고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학자금 지원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안양옥 이사장은 "50사단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학자금 제도 교육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 환경 개선에 일조하여 장병들이 전역할 때까지 즐겁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우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는 수준 높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만들고,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소득구간(분위) 산정, 국가장학제도 등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게임으로 자체 개발하고 기관의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지난 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참여한 세문중학교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은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재단의 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 대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16회로 대폭 확대 제공하여 교육분야 공공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Q&A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는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
된 수많은 궁금증이 모이
는 곳이다.
고객센터에 6월에 많이 접
수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
한다.

Q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는 보호자 자격과 본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자격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의 자녀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 자격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참고>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대상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대상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기준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6개월(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Q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하고 1년 계획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입니다.
재단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A • 해외유학은 출국 40일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관리)

- 해외유학신고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기간이 명시된 유학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이 인정 가능
하며, 단순 여권이나 비행기 티켓으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채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채무자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하
고 연대보증인의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 입보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연대보증인 등록)

※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의 종류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
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